아! 강화의 봄이여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와 초지진 여행, 봄철 먹을거리를 찾아서

강화의 봄은 고려산에서 완성된다. 선분홍의 진달래가 산천을 물들였다. 한 번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고려산에는 선분홍의 붉은 꽃물결이 일렁인다. 고려산 붉은 기운이 강화의 바닷가 초지진에도 이어져 외세 침략에 목숨으로 항거했던 옛 역사가 붉은 진달래꽃으로 피어난다. 자연과 역사가 하나 되는 곳, 강화도에서 봄을 만끽해보자. 글·사진 장태동(여행 칼럼니스트)

01 고려산 진달래 능선. 산이 높지 않아 쉽게 오를 수 있다. 진달래 능선길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02 돈대로 오르는 길. 강화의 봄은 비장하지 않은 곳이 없다.
03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가 고려산을 운치 있게 만든다.

선분홍 강화의 빛, 고려산에서 완성되다

강화의 자연은 매우 이채롭다. 자연 그대로의 기름진 흙빛과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거친 숨소리가 강화 전역에 퍼져 있다. 이곳에서는 바람도 가볍지 않다.

강화도는 단군성조가 나라를 연 역사와 함께 하며 조선말 서양 열강의 침략에 온몸을 던져 싸운 항쟁의 역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강화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우리는 고려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다의 안개인지 산의 운무인지 모를 희뿌연 공기 사이로 차를 달린다. 넓게 펼쳐진 들판과 논 사이로 길이 나 있다. 주변에 이정표를 삼을 만한 게 없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저씨에게 길을 물었다. 고려산은 어려웠던 길 찾기를 보상해주듯 멋진 풍경을 선물했다. 아름다운 강화의 첫인상이 각인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고려산 북편은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이 태어난 시루미산이다. 그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장수왕 4년(416년)에 천축국(지금의 인도)의 스님과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천축국 스님이 고려산에 올라보니 적색, 백색, 청색, 황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의 연꽃이 피어난 오련지가 보였다. 스님은 다섯 색의 연꽃잎을 공중에 날렸고, 그 연꽃잎이 날아가 떨어진 자리에 절을 지어 각각 적련사(적석사), 백련사, 청련사, 황련사, 흑련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도 적련사(적석사), 백련사, 청련사는 남아 있다.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선사시대의 고인돌 유적지를 산이 품고 있다.

우리는 백련사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선택했다. 다른 곳에서 오르는 코스도 있지만 지도상으로 가장 짧은 거리였다. 정상이라고 해야 500m도 채 안 됐지만 산행 시작부터 계속되는 오르막길이 이어져 숨이 가쁘고 다리가 팍팍해졌다. 키 작은 꽃나무와 소나무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섞여 있는 숲길을 20~30여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 평지 하나 없는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야 했다. 중간에 쉬었다가는 오르기 더 어려울 것 같아 빠근한 다리를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좁은 보폭으로 올랐다. 이마에 얼굴에 등줄기에 땀이 구른다.

서서히 몸이 산에 적응하는 것을 느낄 무렵 넓은 길이 나왔다. 군사지역의 군용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다. 이 도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시야가 트이면서 눈아래 풍경이 밝히기 시작한다. 선분홍의 진달래가 산비탈을 뒤덮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괜찮았다. 한 숨 고를 겸 우리도 그곳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진달래 산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빛난다. 굳이 말로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그들은 그 풍경에 감동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 무리 중 하나이다.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듯이 진달래 꽃 한 송이 한 송이도 바람에 흔들리는 힘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군중의 함성처럼 일제히 소리치는 꽃들의 아우성 앞에서 사람도 힘을 얻는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정상이다. 숲 속 오솔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나무 없는 산비탈에 진달래 꽃사태가 났다. 사람들은 그 사이로 난 오솔길에 파묻힌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에서 보이는 건 온통 진달래뿐이다. 산 전체를 뒤덮은 선분홍 빛 진달래 산천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꽃 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진달래처럼 가녀린 것도 없다. 그러나 온

산천을 뒤덮어 버린 진달래의 모습처럼 강한 것도 없을 것이다. 무리를 이루어 아름다운 건 사람이 아니라 꽃이다.

한 줄기 땀을 쏟아내고 진달래 무리 사이에 앉아 꽃바람을 맞는다. 민중의 세상을 외치던 노동시인들의 시 구절 속에, 민족해방을 외치던 해방시인들의 노랫말에 진달래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가녀린 꽃 한 송이 진달래지만, 무리지어 산 전체를 덮은 그 장엄함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진달래 산천의 선분홍 빛이 강화를 물들이고 있었다.

조선의 심장을 지켜라

선분홍 진달래 무리가 강철보다 강해 보였다. 우리는 강철로 피어난 붉은 꽃무리 속에 앉아 안개에 잠긴 먼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육지의 흙빛과 다른 강화의 산천을 생각하다가 문득 지난 한 역사를 떠올려 보았다.

고려 항몽 39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땅 강화.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은 팔만대장경을 새기는 손끝마다 빛났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조선을 침략하는 외세에 죽음으로 항쟁한 곳 또한 이곳 강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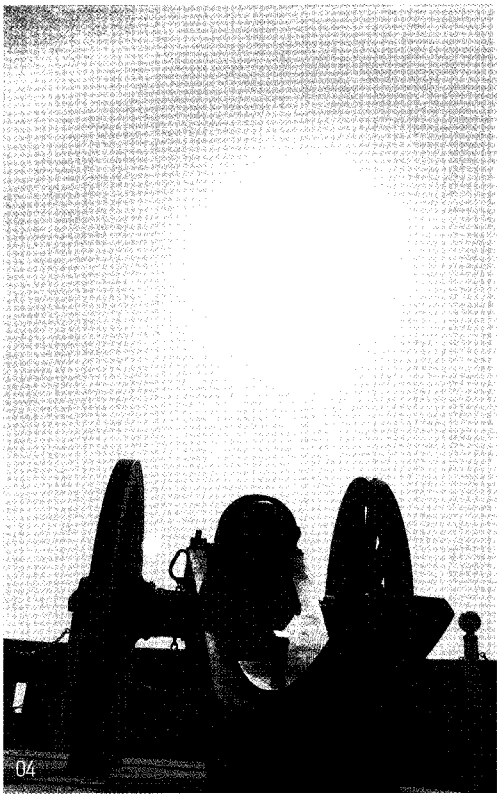
강화해협을 지키는 최전방 진지 초지진, 강화해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대가 있었던 덕진진, 그리고 광성보 오두돈대, 갑곶돈대 등 수십 개의 돈대와 진지들이 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팽팽한 긴장을 깨고 터지는 첫 포성에 이어 진지를 향한 열강 함선의 대포와 적들이 있는 바다를 향한 조선 대포에서 뿜어냈던 포연이 검은빛 해협의 진흙 뻘 위에서 자욱하게 피어났겠지. 조선의 심장을 지키려다 순국한 그들의 넋이 '고려산'을 온통 선분홍 꽃으로 물들인 건 아닌지. 불을 뿜어 내던 대포와 밤을 새며 치렀던 치열한 전투 끝에 강화에도 봄이 왔다. 그동안 수 천 번의 봄이 강화에도 왔겠지만, 그 봄이 어디 봄처럼 화사할 수 있었겠는가.

산을 내려온 우리는 차를 달려 초지진을 찾아 그 성벽 안에 앉았다. 강화해협을 통해 한강을 거슬러 조선을 침략하려는 서양 열강 함선과의 첫 전투는 초지진에서 벌어졌다. 1866년 병인양요, 로즈가 이끄는 프랑스군 극동함대가 천주교를 전파하려는 자국의 신부 및 천주교도들을 탄압했다는 구실로 포문을 열었다. 1871년에는 미국의 로저스 사령관이 이끄는 함대와의 일전, 이른바 신미양요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그로부터 4년 뒤 일본군함 운양호와 치열한 격전을 벌인 곳도 초지진이다.

지금도 초지진에 가면 당시 사용했던 조선의 대포 '홍이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초지진 성벽 밖에는 당시의 치열한 전투를 되새기게 하는 포탄 흔적이 남아 있다. 포연이 자욱하고 포성이 난무했던 그 옛날 이곳, 지금은 너무나 한가로워서 평화스럽다. 우리는 이대로 강화의 봄이 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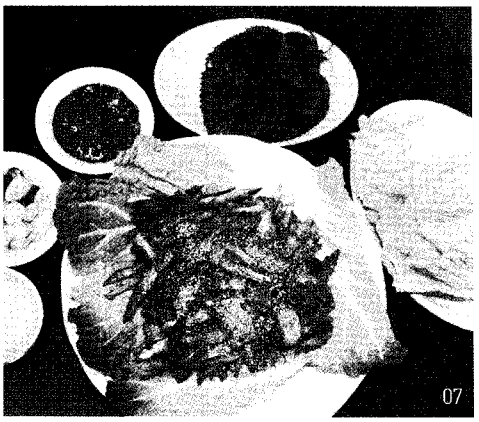
강화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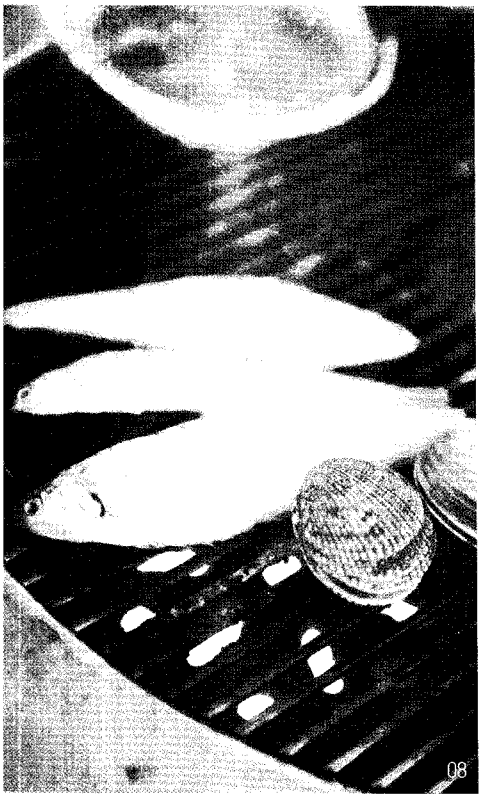
초지진을 나와서 바닷가를 따라 남으로 내려갔다. 강화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동막해수욕장의 시원한 풍경과 강화도 만의 별식을 찾아가는 길이다. 동막해수욕장 앞에는 먹을 게 많다.



04 강화의 한 포대 진지 위로 봄날 해가 쨍하게 떠있다.
05 초지진 진지 아래로 펼쳐진 뻘
06 초지진 진지 밖. 흰색으로 둥글게 칠한 부분은 열강의 함선에서 쏜 대포에 맞은 흔적이다.

07 밴댕이 무침요리
08 밴댕이 구이와 조개구이
09 강화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막걸리와 순무로 담근 깍두기





강화에서 유명한 인삼과 순무, 밴댕이는 4월에서 6월까지가 제철이다. 인삼으로는 막걸리를 담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게 했고 안주로 순무김치면 충분하다. 인삼막걸리를 시키니 순무김치가 기본으로 식탁에 깔렸다. 인삼막걸리에 순무김치면 충분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밴댕이 맛을 봐야 할 것 같아 밴댕이회와 밴댕이구이를 시켰다. 강화 특산물 먹을거리 3종 세트를 한 번에 맛본 것이다.

밴댕이는 4~6월에 맛이 좋다고 한다. 회로도 먹고 새콤달콤한 양념과 갖은 야채를 넣고 무쳐서도 먹고 구워도 먹는데 개인적으로는 밴댕이구이가 입에 맞았다. 밴댕이는 칼슘과 철분이 많다고 알려졌다. 강화도 선수포구와 외포리에도 밴댕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다. 밴댕이회와 무침보다 구이가 맛있다. 한 마리 통째로 들고 뜯는 맛도 괜찮다. 불에 구운 밴댕이는 아주 고소했다.

인삼막걸리와 밴댕이 요리는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일단 밴댕이 시식을 끝낸 뒤 순무 김치를 안주 삼아 인삼막걸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쌉쌀하고 시원하면서 구수하고 들큰한 맛이 느껴지면서 걸쭉하게 목으로 넘어가는 인삼막걸리는 특별했다. 전국의 막걸리 맛을 두루 보고 다니던 터라 다른 지방 인삼막걸리도 먹어봤는데 그것과는 다른 맛이 느껴졌다. 인삼향이 더 진하면서 깊다고 할까? 막걸리도 술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야 약이 되겠냐마는 적당히 마신다면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알려진 인삼이 첨가된 막걸리이니 몸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순무김치는 인삼막걸리 안주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다. 강화도에서 가본 몇 개의 식당 중 순무김치를 내놓지 않은 곳이 없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순무는 오장에 이롭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며 섬유소가 많아 변비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순무 또한 다른 무들처럼 무청이나 새싹도 먹는데 칼슘과 칼륨, 철분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영양이나 효능을 일일이 따져가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흙냄새가 나는 순무는 꼭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보통 무와는 다른 쌉쌀하면서 달고 거친 그 맛과 씹는 질감이 강화도 흙의 향기와 느낌을 닮았기 때문이다.

강화도 가는 방법

⊙ 대중교통

인천터미널, 신촌역, 영등포, 일산, 안양 등지에서 강화로 가는 버스가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지를 돌아보기에는 차 시간대나 운행 코스 등의 이유로 불편한 점이 많다.

⊙ 자가용

- **고려산** : 강화대교 - 48번 국도 - 부근삼거리에서 좌회전 - 첫 삼거리에서 좌회전 - 백련사 - 고려산(이정표가 없다. 주변에 기준으로 삼을 건물도 적당한 게 없다. 길을 물어 찾아가는 게 좋다)
- **초지진** : 강화대교 - 강화역사관 앞 해안순환도로 - 광성보 - 초지진
- **동막해변** : 강화대교 - 알미골삼거리에서 좌회전 48지방도 - 전등사 지나 선두포(길화교 삼거리)에서 우회전 동막방향 - 함허동천 진입로 입구 앞 지나 정수사 진입로 앞을 지난다 - 분오리돈대 앞을 지나 동막해변
- **고려산~초지진~동막해변 코스 길안내** : 고려산 - 48번 국도 강화읍내 방향 - 강화역사관 앞 해안순환도로 - 광성보 - 초지진 - 해안도로 - 선두포(길화교 삼거리)에서 좌회전 동막방향 - 함허동천 진입로 입구 앞 지나 정수사 진입로 앞을 지난다 - 분오리돈대 앞을 지나 동막해변